

상담센터 출범 1주년 맞아

지난 4월 1일로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종합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언론보도피해의 사전예방 및 구제에 관한 교육을 위해 지난해 4월 1일 문을 연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는 1년 동안 모두 2,371건의 상담을 했으며, 언론사, 대학교 및 각급 단체들을 대상으로 모두 60회의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토론회 열려



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제주지역 인사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가졌다. 고창실 위원(전 제주산업정보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종배 위원(전 제민일보 상무이사)이 「달라진 언론중재제도와 중재위의 역할 - 언론중재법 제정으로 살펴본 중재절차」라는 주제논문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주지역의 언론계, 관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8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7월 28일 시행을 앞둔 언론중재법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부산간담회 개최

조준희 위원장은 4월 20일 부산에서 지역 언론사 대표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노기태 국제신문사장, 이몽룡 KBS 부산방송총국장, 강중묵 부산MBC 사장, 박용길 부산방송 사장, 김봉남 CBS 부산방송본부장 등 언론사 대표와 부산중재위원들이 참석하여 언론피해의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중재위원 워크숍

위원회는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충북 수안보파크호텔에서 중재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새 언론중재제도의 실무적 운영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박영상 위원(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이 사회를 맡았으며, 양삼승 위원(변호사)과 송영천 위원(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 각각 「중재절차의 변화와 효과적인 운영방안」과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효율적 조정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언론피해구제교육 교재 펴내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는 지난 4월 11일 언론피해구제교육용 교재를 발행했다. 이번에 펴낸 교재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과 언론중재위원회」 및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의 대처방안과 언론중재위원회」등 모두 2권이다.

상담센터에서는 언론사, 기업, 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무료로 언론피해예방 및 구제에 관한 교육을 해왔다.



위원회 자료실 개방

위원회는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도서 및 정기간행물, 자료, 해외원서 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5월 9일부터 자료실을 개방 운영하고 있다. 도서 및 자료 목록은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자료실 이용지침도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지난 한달 동안 소장 도서 및 자료 목록을 재분류하고 서고를 재정비했다.

자료실은 서울 프레스센터빌딩 9층(조사연구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종 도서 및 자료 열람과 복사가 가능하다.